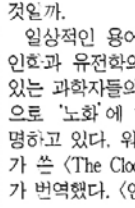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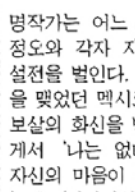
▲노화시계 =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를 인간이 가지는 근본 고동으로 본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 우리는 왜 늙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나는 없다 = 종견 작가 황충상의 세 번째 창작집. 여러 인간상을 통해 '나는 없다'는 화두를 제시한다. 나이 오십에 별거를 선언하고 집을 나온 주인공인 무명작가는 어느 날 문학 후배인 심희, 정오와 각자 자신의 문학세계에 대한 심정을 밝힌다. 그러던 중 지난날 인연을 맺었던 멕시코 여인 베로니카에게서 보살의 화신을 발견하고 후배인 정오에게서 '나는 없다'는 화두를 받으면서 자신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깨닫는다. (작가정신, 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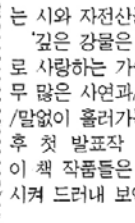
▲사람의 첫눈길 그 설레임으로 살고 싶다는 어두운 시대에 희망의 새벽을 노래했던 불자이신 박노해씨와 장석남씨 등 32명 시인들이 자신의 첫사랑을 고백하는 시와 자전선으로 엮어진 책. '깊은 강물은 소리가 흐르듯/진실로 사랑하는 가슴은/너무 많은 말과 너무 많은 사연과/너무 많은 눈물이 있어/말없이 흘러가는 것' 박노해씨의 출간 후 첫 발표작 '사람의 침묵'에서처럼 이 책 작품들은 모두 사랑을 한껏 승화시켜 드러내 보인다. (동인, 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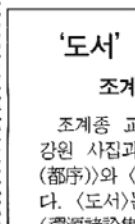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원장 압도)은 강원 사립과의 교과목인 <도시(都市)>와 <절요(節要)>를 펴냈다. <도시>는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證集部書)>의 약칭으로 규봉종일(780~841)이 지자.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주장한 대법적 저술로 꼽힌다. <절요>는 <법집(法集)의 약칭으로 보조의 사상체계가 종합되어 있으며, 정혜승수·돈오점수·간화선에 대한 입장이 함께 설명되어 있다. 종파주의적 굴레를 벗어난 보조의 구도정신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값 각 권 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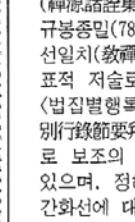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원장 압도)은 강원 사립과의 교과목인 <도시(都市)>와 <절요(節要)>를 펴냈다. <도시>는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證集部書)>의 약칭으로 규봉종일(780~841)이 지자.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주장한 대법적 저술로 꼽힌다. <절요>는 <법집(法集)의 약칭으로 보조의 사상체계가 종합되어 있으며, 정혜승수·돈오점수·간화선에 대한 입장이 함께 설명되어 있다. 종파주의적 굴레를 벗어난 보조의 구도정신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값 각 권 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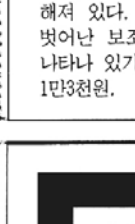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원장 압도)은 강원 사립과의 교과목인 <도시(都市)>와 <절요(節要)>를 펴냈다. <도시>는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證集部書)>의 약칭으로 규봉종일(780~841)이 지자.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주장한 대법적 저술로 꼽힌다. <절요>는 <법집(法集)의 약칭으로 보조의 사상체계가 종합되어 있으며, 정혜승수·돈오점수·간화선에 대한 입장이 함께 설명되어 있다. 종파주의적 굴레를 벗어난 보조의 구도정신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값 각 권 1만3천원.



조계종 교육원(원장 압도)은 강원 사립과의 교과목인 <도시(都市)>와 <절요(節要)>를 펴냈다. <도시>는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證集部書)>의 약칭으로 규봉종일(780~841)이 지자.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주장한 대법적 저술로 꼽힌다. <절요>는 <법집(法集)의 약칭으로 보조의 사상체계가 종합되어 있으며, 정혜승수·돈오점수·간화선에 대한 입장이 함께 설명되어 있다. 종파주의적 굴레를 벗어난 보조의 구도정신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값 각 권 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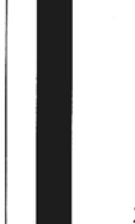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원장 압도)은 강원 사립과의 교과목인 <도시(都市)>와 <절요(節要)>를 펴냈다. <도시>는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證集部書)>의 약칭으로 규봉종일(780~841)이 지자.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주장한 대법적 저술로 꼽힌다. <절요>는 <법집(法集)의 약칭으로 보조의 사상체계가 종합되어 있으며, 정혜승수·돈오점수·간화선에 대한 입장이 함께 설명되어 있다. 종파주의적 굴레를 벗어난 보조의 구도정신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값 각 권 1만3천원.



조계종 교육원(원장 압도)은 강원 사립과의 교과목인 <도시(都市)>와 <절요(節要)>를 펴냈다. <도시>는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證集部書)>의 약칭으로 규봉종일(780~841)이 지자.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주장한 대법적 저술로 꼽힌다. <절요>는 <법집(法集)의 약칭으로 보조의 사상체계가 종합되어 있으며, 정혜승수·돈오점수·간화선에 대한 입장이 함께 설명되어 있다. 종파주의적 굴레를 벗어난 보조의 구도정신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값 각 권 1만3천원.



조계종 교육원(원장 압도)은 강원 사립과의 교과목인 <도시(都市)>와 <절요(節要)>를 펴냈다. <도시>는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證集部書)>의 약칭으로 규봉종일(780~841)이 지자.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주장한 대법적 저술로 꼽힌다. <절요>는 <법집(法集)의 약칭으로 보조의 사상체계가 종합되어 있으며, 정혜승수·돈오점수·간화선에 대한 입장이 함께 설명되어 있다. 종파주의적 굴레를 벗어난 보조의 구도정신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값 각 권 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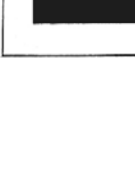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원장 압도)은 강원 사립과의 교과목인 <도시(都市)>와 <절요(節要)>를 펴냈다. <도시>는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證集部書)>의 약칭으로 규봉종일(780~841)이 지자.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주장한 대법적 저술로 꼽힌다. <절요>는 <법집(法集)의 약칭으로 보조의 사상체계가 종합되어 있으며, 정혜승수·돈오점수·간화선에 대한 입장이 함께 설명되어 있다. 종파주의적 굴레를 벗어난 보조의 구도정신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값 각 권 1만3천원.



조계종 교육원(원장 압도)은 강원 사립과의 교과목인 <도시(都市)>와 <절요(節要)>를 펴냈다. <도시>는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證集部書)>의 약칭으로 규봉종일(780~841)이 지자.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주장한 대법적 저술로 꼽힌다. <절요>는 <법집(法集)의 약칭으로 보조의 사상체계가 종합되어 있으며, 정혜승수·돈오점수·간화선에 대한 입장이 함께 설명되어 있다. 종파주의적 굴레를 벗어난 보조의 구도정신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값 각 권 1만3천원.



조계종 교육원(원장 압도)은 강원 사립과의 교과목인 <도시(都市)>와 <절요(節要)>를 펴냈다. <도시>는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證集部書)>의 약칭으로 규봉종일(780~841)이 지자.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주장한 대법적 저술로 꼽힌다. <절요>는 <법집(法集)의 약칭으로 보조의 사상체계가 종합되어 있으며, 정혜승수·돈오점수·간화선에 대한 입장이 함께 설명되어 있다. 종파주의적 굴레를 벗어난 보조의 구도정신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값 각 권 1만3천원.



조계종 교육원(원장 압도)은 강원 사립과의 교과목인 <도시(都市)>와 <절요(節要)>를 펴냈다. <도시>는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證集部書)>의 약칭으로 규봉종일(780~841)이 지자.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주장한 대법적 저술로 꼽힌다. <절요>는 <법집(法集)의 약칭으로 보조의 사상체계가 종합되어 있으며, 정혜승수·돈오점수·간화선에 대한 입장이 함께 설명되어 있다. 종파주의적 굴레를 벗어난 보조의 구도정신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값 각 권 1만3천원.

비구니 구도행장 생생하게

하춘생기자 '깨달음의 꽃-한국불교를 빛낸...'

근대 이후 기라성 같은 비구니사들의 구도행각 못지않게 한국불교 중심에서 구도열정을 불사하며 법맥을 형성해 온 비구니 스님들의 발자취는 그동안 외면돼 온 것이 사실이다. 여성성불(女性成佛)의 불가론(不可論)이 지배적이었던 한국 승가 풍토에서 의도적인 면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한불교신문 하춘생 차장(한국불교기자협회장)이 펴낸 <깨달음의 꽃-한국불교를 빛낸...>(여래)는 이같은 한국불교 풍토에 대한 자각의 요청이자 한국불교 사상 최초로 비구니 행장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더욱이 이 행장기록이 전혀 없는 비구니 수행자들의 발자취를 저자가 발로 뛰며 직접 발굴·기록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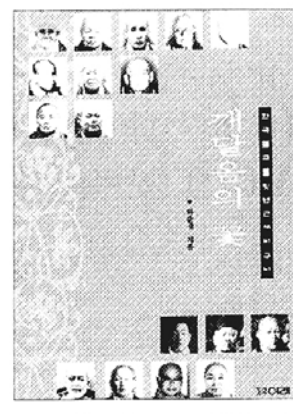
이 책에는 한국불교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부를 살다 간 17인 비구니

스님들의 가르침이 그대로 담겨 있다. 거의 모두가 상좌들의 구전에 의한 사실적 기록만을 나열했으며, 전기 형식을 띤 편년체식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 이들 스님이 수행하던 당시의 고승들이나 목적, 수행사항 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120여장의 풍부한 사진자료를 실어 이해를 도왔다.

제1부 '깨달음의 꽃이 되어'와 제2부 '깨어있는 삶으로'에서는 한국 불교사상 그 발흥을 알 수 없었던 비구니 선맥을 일으키고 운수납자로서의 본분을 지켰던 법희스님(1887~1975)을 비롯해 만성(1837~1975)·봉공(1907~1965)·월해(1835~1956)·선경(1904~1996)·응민(1923~1984) 스님이 소개돼 있다. 또 열불정진과 포교·교육에 모범을 보였던 성문스님(1893~1974)과 최초의 여류문인으로 불문에 귀의해 만공선사의 선맥을 계승한 일엽스님(1866~1971), 철저히 좌선을 행했던 대영스님

(1903~1985)의 깨우침이 담겨 있다. 제3부 '빛나는 가르침을 전하며'에는 근세 비구니계 3대 강백이며 법사인 금홍(1892~1965)·해옥(1901~1969)·수옥(1902~1966)스님의 가르침이 기록돼 있다. 제4부 '정당한 도량을 가꾸고'에는 불사에 모범이 되고 그 원력이 컸던 상근(1872~1951)·법일(1904~1991)스님과 비구니 중단인 보문종을 창종하고 사회복지사업에 전력한 공탄(1885~1980)·은영(1910~1981)스님의 행장이 기록돼 있다.

특히 당대의 고승 만공스님과 무마디 법거랑으로 단박에 큰 법기(法器)임을 인정받았던 법희스님의 이야기와 걸어서 강릉을 지나 사천을 넘어가는 도중 길을 잃고 해마다가 난데없이 나타난 하얀 강아지를 따라 접찰산중을 넘은 끝에 상원사에 도달했다는 봉공스님의 이야기 등 각 스님들에 얽힌 일화도 생생히 전하고 있다.



하춘생씨는 "이 책을 통해 한국불교의 여성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소개하지 못한 20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를 수집해 같은 형식으로 출간하고, 이와 함께 공개되고 있지 않은 비구니 문중도 함께 발원 계 획"이라고 말했다. 값 7천8백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금강경의 깊은 뜻 쉽게 이해

송찬우교수 '뜻으로 읽는 금강경'

철저한 공사상에 의해 번뇌와 분별하는 마음을 끊음으로써 반야의 지혜를 얻어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금강경>.

송찬우 교수(중앙승가대)가 펴낸 <뜻으로 읽는 금강경>(보현암)은 자구의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금강경>이 지닌 의미를 이해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 초심자에게 특히 유용한 책이다. 동국대 역경위원을 역임

하고 오랫동안 경전 번역에 힘써 온 저자 특유의 해법이 <금강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깊이로 빠져들게 한다.

책 앞부분은 '총론해제'와 '금강반야의'로 구성되어 있다. <금강경>이 어떤 것이며, 그 중심사상이 무엇인지를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해설해 놓았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 밝혀 놓은 서문에서는 부처님이 어떤 연유로 <금강경>을 설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본문은 법회를 열거된



동기 등 모두 32개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각 주제에 해당하는 경전 문구에 대해 원문과 번역을 함께 실고 그 뜻을 상세히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값 1만원. 한명우 기자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불교와 환경보호' 펴내

'인간(正報)과 자연(依報)은 둘이 아니다(依正不二)', '몸과 땅은 본래 두 모습이 아니다(身土本無二相)'.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회장 성타스님)는 '불교사상과 환경'을 테마로 한 본격 단행본 <불교와 환경보존>(청정국토본부)을 펴내, 아름다운세상(주)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청정국토본부가 창립 6주년을 맞아 불교사상과 환경보존에 관한 연구논문을 한 데 모은 것으로 불교환경운동의 교과서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의 사상 가운데 환경보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논문이나 글을 모아 다시 분야별로 세부 목차를 정해 편집했다. 제1장 환경 성명서(불교도 환경 선언문 및 성명서, 환경 발원문), 제2장 환경전승에 나타난 환경보호 성구(聖句), 제3장 불교의 자연관, 제4장 불교사상과 환경보존, 제5장 사찰환경보존, 제6장 불교환경운동, 제7장 불교의 환경교육, 제8장 불교의 생명사상, 제9장 언어 공해, 불교의 계율로 본 환경보존, 제10장 불교 지도자의 환경보존, 제11장 불교 지도자의 환경법문, 제12장 청수년 자연사랑 글짓기 공모전 입상작, 제13장 환경시 등으로 꾸며져 있다.

법정, 법륜스님을 비롯 목장배 오형근 박선영 연기영 전재성 교수 등 23명이 집필위원으로 참석했다. 신국판 430쪽. 값 1만7천원.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불교용어·의식을 수화로

수화통역사 강주수씨 '불교수화'

양손 손가락을 벌려 등골 게 큰 공을 친 듯이 하여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하고 손가락이 위를 향하게 하여 서로 손가락을 붙인다. 이런 손모양은 바로 '불교'를 의미하는 수화다.

수화 통역사 강주수 보살이 펴낸 <불교수화>(부다가야)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로 불교를 설명해 놓은 책이다. 불교, 보살, 수행 등 꼭 알아야 할 불교용어들을 손가락과 얼굴 표정 등의 그림으로 자세히 표현해 놓았다. 또 반야심경과 삼귀의, 찬불가, 사홍서원 등 각종 불교의식에 대한 수화도 수록했다. 불교수화를 정리한 것은 이 책이 처음이



지 나래대로 통일된 불교수화의 정함을 제시하고 있다. 값 1만원. (051)865-4383

진연스님의 불교이야기

초심자 이해 쉽게 교리·사상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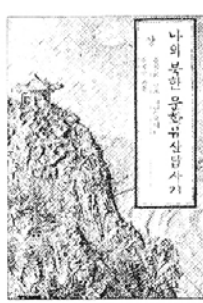
불교를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무리 쉬운 책을 보아도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 불교가 어렵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어렵다는 마음의 상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 진연스님(천안 성불사 주지)은 바로 그런 마음을 경계하며 이 책을 읽고라고 권한다. 그러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쉬운 용어로 불교의 교리와 사상을 개괄하고 있어 초심자들이 읽기에는 그만인 입문서다. 부처님 일생과 계율, 업, 윤회, 자비, 보살 등을 주제로 불교사상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일상에서의 참선과 화두, 마음 닦는 길도 제시하고 있다. (해음, 8천5백원)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지음

유홍준씨 눈에 비친 북한문화유산



자기 고향인 사리원 성불사에 꼭 가 보라며 고향사랑과 자랑을 늘어놓던 북한 고려항공 여승무원. 이 책에는 북한의 문화유적과 사람들의 표정을 따뜻하게 읽어 내려간 저자의 느낌이 그대로 담겨 있다.

고구려의 옛모습을 다시 복원해 놓은 평양의 정릉사, 묘향산의 보현사와 8각13층석탑 그리고 안심사 상원암, 서산대사의 금강굴 등 불교문화유적과 평양 대성산성, 묘향산, 조선중앙역사박물관, 강서의 고구려 벽화무덤 등 북한의 대표적인 문화유적도 저자 특유의 구수한 입담으로 만날 수 있다. 92장의 생생한 컬러사진은 북한유적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 (중앙M&B, 9천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시어른 집기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은 산 물은 물	정찬주	민음사
2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룡	효림
3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동쪽나라
4	법수로 배우는 불교	이재열	역시어른
5	100문100답(불·보살·신중론)	고영·고영	대일장사
6	화엄경사상 연구	도업	민족사
7	불교입문	조계종연구원	조계종출판사
8	생황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9	성지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윤순	신우당
10	그냥 갈 수 없는 길	이도원	불광

구입문의:(02)737-0695

한국불교는 월주스님과 함께 발전될 수 있습니다!!

- 1. 불교를 불교답게**
 - 수행가풍 진작 및 지원관리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승가교육체계 내실화
 - 승가복지증진대책 추진
 -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 완공
 - 연수교육의 범위와 대상인원을 확대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
 - 교과과정의 통일성 및 강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영역을 개발
- 2. 내실있고 화합된 중단**
 - 교구본사주지회의 정례화
 - 종책협의회 구성 및 이 기구의 정례화, 법제화
 - 종무행정 원스톱서비스 및 책임처리제 도입
 - 전국사찰을 연결하는 통합전선망 구축
 - 종단의 중대사에 대한 다양한 여론수렴
 - 종단 운영 방침과 중무 계획을 매년 2회 공지
 - 집행부 인사에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 장치 설치
- 3. 사회로 회향하는 불교**
 -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본부 결성
 - 경제난 극복 및 실직자 구제활동 강화

- 지역사회활동 강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유지 강화
 -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 지역별, 계층별 포교전략 수립 및 포교활성화
 - 도시와 농촌 사찰의 연대를 통한 도농공동체 활동을 적극 장려, 지원
 - 불교장례식장이나 납골당 등 종교적 색채를 띤 재정사업 적극 유치
- 4. 우리 문화를 살리는 불교**
 -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의 세계적인 종교축제화
 - 성보박물관 활용방안 모색 및 민족문화교육으로서 사찰 기능 강화
 - 전통문화 및 현대적 문화 소재로서 불교사상 보급
 - 생활과 밀접한 불교문화상품 제작, 보급
 - 절단매체 활용 활성화
 - 불교디자인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개최
 - 불교예술인을 집중 육성관리
 - 종단을 상징하는 통일적인 상징물과 서체 보급
 - 5. 미래로 도약하는 불교**
 - 불교종합문화회관 건립
 - 종단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정보화사회 종단 적응력 신장
 - 인촌불교회관 건립

태강 월주스님 수행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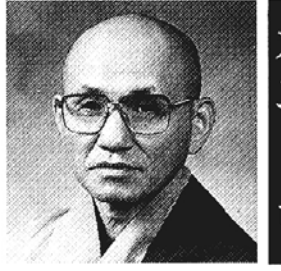
수 계 : 금오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54, 법주사) 금오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56, 화엄사)

학 력 : 화엄사 불교전문강원 대교과 졸업(58)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69) 원광대학교 명예철학박사학위 취득(96)

경 력 : 금산사(61) 개운사(71) 영화사(86), 조계사(94) 주지 제2, 3, 4, 5, 6, 7, 9, 10대 중앙총회의원 5대 중앙총회위원장(78), 개척회의 의원(94)

총무원 교무부장(70) 총무부장(73) 총무원장(94) 학교법인 대승학원(65) 동국학원(68) 이사 승가학원(94) 이사장

10·27 법난진상규명추진위원회 위원장(88)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본부 공동의장(8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89)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상임공동대표(90)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중앙상임위원(91)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94)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97)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고문(98) 실업극복국민운동 공동대표(98)



기호 1번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 슬로건 - 한국불교는 월주스님과 함께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인성과 화합속에 지속적 개혁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갑니다!!